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 제주도 새해예산안 7조7875억 계수 조정... 640억 삭감

버스 준공영제·제주~칭다오 항로 '썩둑'

양 행정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예산도 전액 삭감
9일까지 예결위 심사 이어 10일 본회의서 예산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약 640억원을 삭감하는 등 쓰임새를 조정했다.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전날 계수조정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서 640억8670만원을 감액했다.

각 상임위 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통합관리센터 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용역비 2억원을 포함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비 1억원 등 총

135억6951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양 행정시 경로당 개보수비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안전·편의 증진 기능보강사업 등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70억원을 비롯해 제주형 압축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 6000만원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6억원 등 총 191억2500만원을 감액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RISE) 7억원을

포함해 수소 승용차 구입 보조금 12억원,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15억원 등 150억9500만원을 감액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관광블루오션사업과 바다페스타 사업 등 총 90개 사업 예산에서 83억 7479만원을 삭감했다. 또 행정자치위원회는 양 행정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예산 전액과 도민의 숲 조성사업비 7억원,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공사비 12억원 등 79억 2240만원을 감액했다.

앞서 제주도는 새해 예산안을 7조7875억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092억원

(2.76%) 증가한 것이다. 특히 내년 예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820억원의 지방채가 포함돼 있다.

제주도의회는 12월 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막바지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가 조정한 예산을 다시 심사해 오는 9일까지 증액과 삭감 등 계수조정을 벌인다.

이후 제주도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심사한 예산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지방의회는 예산 삭감에 대해선 자율성을 인정 받지만, 증액하려면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026년도 교육청 예산안 36억원대 쓰임새 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총 36억8620만원이 증액 및 감액되는 조정이 이뤄졌으며,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 등 일부 예산은 삭감된 반면, 교육환경 개선과 교실 수업 질 향상 사업에 집중 재배치됐다.

계수조정 결과에 따르면 삭감 사업은 총 8개로, 감액액은 36억8620만원이다. 특히 계약제·지방공무원·교원·교육공무직원 등 인건비에서 27억2000만원이 줄었다. 이밖에 학교 신·증설 4억6820만원, 학교시설 확충 1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교실수업 개선 등 사업에 9억3400만원, 교육환경개선 7억 4500만원 등 학습 환경 개선 관련 사업 예산은 증액됐다. 김채현기자



도심 걸으며 늦가을 '만끽' 화창한 날씨를 보인 30일 제주시 연성로 일대에서 열린 '2025 제2회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에서 20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도로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 관련기사 5면

감귤밭 포전거래 사기 잇따라... 4면 / 제주, 준공후 미분양 주택 폭증... 6면

제주의 속살
7개월만 힐링하세요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3차 참가자 모집

일시: 12월 6일(토) 08시~16시
대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20세 이상 성인)
모집: 39명 (한라일보 인터넷 선착순)
코스: 별라릿굴 ~ 남거봉 정상 ~ 알팔라릿굴 ~ 통한곶 ~ 수산한곶 ~ 수산굴 ~ 사려를 ~ 유건에오름 정상 ~ 1119번 지방도 (9.71km)
참가비: 1만5천원 (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한라일보사)
문의: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064)750-2291, 2543

한라일보사는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 '2025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를 통해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걸으며 일상의 피곤함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집결지: 제주시 종합운동장 시계탑,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산행기간: 12월 1일(월)~12월 4일(목)까지
참가접수: 한라일보 인터넷 <http://ecotour.ihalla.com>

한파·대설 대비 축산재해 대책 본격 가동, 내년 3월 15일까지 상황실 운영... 현장대응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한파와 대설에 대비해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단기간 강한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수면과 대기 온도차로 인한 폭설이 예상된다.

이에 제주도는 축산재해 대응체계 강화, 피해복구 및 예방 지원, 가축관리 행동요령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기상상황과 축사·가축 관리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축사시설과 사양환경을 사전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

해 보온·환기·급수 관리, 양봉 월동 준비 등 축종별 관리요령을 안내한다.

소·돼지·닭·양봉농가에는 가축재해보험료 가입비를 지원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돕는다.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해 노후 전기시설 점검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축사 화재 예방 지원과 축사 단열·보온 보강 및 환기시설 개선 등 시설 현대화 사업도 병행한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은 "올겨울은 기상변동성이 커 한파·폭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행정시·농·축협·생산자단체와 함께 촘촘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코팅필름을?
기과?
장수필름 가격에!

무적이 오래 가는
코팅스트롱

새미그룹을 검색해보세요

- 오래가는 무적성능!
- 6중 구조, 뛰어난 내구성!
- 0.15, 0.10, 0.06mm

구매 문의 
1877-1447